

성막(교회)을 세우시는 하나님

출 35:30-36:7

2021년 10월 23일(토)

1.

성막 건설의 총 책임자는 '모세'입니다.

성막 건설하는 현장 감독은 '브살렐'이요, 조감독은 '오홀리압'입니다.

30절에 보는 것처럼, 현장 감독인 '브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입니다.

हु은 르비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입니다.

हु의 아들이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훌의 손자가 브살렐이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브살렐이 하나님의 지명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은,

분명 브살렐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브살렐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훌의 믿음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हु이 손자 브살렐을 무릎에 앉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앙을 가르쳤을 겁니다.

전에 LA에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신사참배로 일제시대 옥고를 치룬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께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자라셨답니다.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물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할아버지를 추억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바램대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자신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덕분이었다고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분명, 브살렐도 할아버지 훌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हु의 믿음이 손자 브살렐에게 이어진 겁니다.

할아버지 훌은 중보 기도자로 살았다면,

손자 브살렐은 최초의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현장감독으로 지명과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믿음은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훌이 손자 브살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았겠습니까?

브살렐이 성막 건설하는 현장 감독으로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성막을 건설하는 모습을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았을 사람이 할아버지 훌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 대에, 우리의 손주 대에 더욱 큰 믿음의 꽃을 피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감독은 브살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절,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주어는 브살렐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브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신 겁니다.

성막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등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다만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36장 1절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막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막 짓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10절에서 예수님은 부름 받은 종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명령 받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는 일,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 이 모든 일은 명령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익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3.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인 사람이요, 또 하나는 예물입니다.

사람도 있어야 하고 예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실 때 먼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2절,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강제로, 억지로 가져오게 한 예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 곧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가져온 겁니다.

5절, “...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6절에 보면, 성소에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둘째는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로 예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하나님이 교회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4.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예물을 가져오게 하셔서 성막을 지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예물을 가져오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걷는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부르심 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셨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합시다.

둘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철저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시다.